

너희도 가려느냐

* 3/30(화) 요한복음 ② 6-9장

1-9장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1-5장 Come and See

▶ 6-9장 너희도 가려느냐

10-17장 그리스도인의 언약

10-13장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4-17장 그리하면 이루어라

18-21장 그리스도인의 사명

18-21장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Before 출처며 읽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시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After 묵상하기

“너희도 가려느냐”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7표적

- 1)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 질적 변화(2:1-11)
- 2)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 공간 초월(4:46-54)
- 3)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 시간 초월(5:1-9)
- 4) 5천 명을 먹이심
: 양적 변화(6:1-13)
- 5) 물 위로 걸어오심
: 자연법칙 초월(6:16-21)
- 6)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심 : 세상의 빛(9:1-7)
- 7)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 사망권세 초월(11:33-44)

참고도서

HOW주석, IVP성경배경주석

LAB주석, WBC주석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람은 그 질문과 생각을 통해 자신의 수준을 보여 줍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6:25). 그들에게 예수님은 ‘랍비’였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상(理想)은 더 이상 굶주림이 없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그분의 인격과 능력을 가르쳐 보이기
위한 *표적(sign)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4:14, 6:27, 7:37-39).
주님으로 우리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습니다(엡 1:13, 4:30).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6:29, 행 16:30-31, 갈 2:16)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질문과 생각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 이십니다(6:33, 48).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을 믿는 자는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원히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6:35, 51, 53-58, 사 49:10, 계 7:16-17)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건어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결국 주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6:66).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녔는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의사소통이나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막 4:33).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8:43-47).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마음의 걸림을 넘지 못한 말씀은 그저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6:67).”

예수님께서서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 6:68-69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육신을 지닌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떡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우선적인 과제는 ‘떡’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의 구원에 이르도록
친히 ‘유월절의 어린양’이 되셨습니다(1:29, 36, 3:14-18).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려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십니다.
(마 26:26-28, 막 14:22-24, 눅 22:19-20, 고전 11:23-25).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1-33).”

주님의 곁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물음 앞에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